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5백여명 참가 성황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이원걸)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시환)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4월 16일(월)부터 4월 18일(수)까지 3일간 서울 웨라톤 위커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의 원자력 국제 회의인 이번 연차대회는 한국을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 7개 나라에서 5백여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한 인프라(The Role of Nuclear Energy: Infrastructure for a Nuclear Renaissance)'라는 기조 주제 아래 최근 부흥기를 맞은 원자력계의 현황을 짚고 향후 전망 등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4월 17일에 열린 개회 세션에서 이원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의 과제"라고 말하고 "원자력은 깨끗한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응용 기술로 인해 에너지 공급 이외에도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의 하나로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에너지 확보, 환경 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이 미래 한국의 추진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차대회가 세계 각국의 원자력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는 * '한국의 에너지 자원 정책 현황과 전망' (고정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 '프랑스의 원자력산업 현황과 전망 및 원자력 부흥의 비전' (Alain Bugat 프랑스원자력청장), *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개요' (Shunsuke Kondo 일본원자력위원회 위원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Alistair Ruiters 남아공 PBMR 프로젝트 위원장), * '카타르의 비전력 분야 원자력 기술 이용 및 규제 현황과 전망' (Khalid Ghanim Al Ali 카타르 환경자연보존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발표되었다.

4월 17일 오후에 열린 패널 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이창기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처장, Othman Salhi 프랑스 AREVA 아시아담당 부사장의 기조 강연과 함께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가스연구실장,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고숙희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Jaco Kriek 남아프리카공화국 PBMR Ltd. 사장이 패널 리스트로 참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4월 18일에 열린 기술 세션은 '원전 운영 및 보수', '원전 설계 제작 및 건설', '방사선 발생 및 이용 기술', '핵연료주기', '원전 경제성',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원자력 미래 응용 기술 등 7개 기술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61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연차대회와 병행하여 열린 <2007 서울 원자력산업 전시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 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두산중공업(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삼창기업(주), Westinghouse Electric Co., AREVA Korea 등 10개 원자력 업체가 참여하여 연차대회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14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 개최

도의순 한전KPS(주) ISI팀장 대상 수상

2007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이 4월 17일 서울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국무총리상)은 도의순 한전KPS(주) ISI팀장이 받았으며, 금상(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상)은 (주)대우건설 신월성원전현장팀(단체상)과 최영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공로상은 최기정 전우실업(주) 사장(전 한국원산 상근 부회장), 이종재 전 한수원(주) 사장, 김대중 두산중공업(주) 부회장이 수상했다. 수상자와 공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국무총리상)

- 도의순 한전KPS(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 ISI팀장

◆ 금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상) : 2명

- (주)대우건설 신월성원자력 현장팀 (단체상)
- 최영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

◆ 은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상) : 4명

-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단체상)
- 이상종 한전원자력연료(주) 안전성능해석실장
- 이규봉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본부 제3발전소 기술실장
- 정재천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계측제어처 차장

【수상자별 주요 공적 요지】

◆ 대상(국무총리상)

도의순 한전KPS(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 ISI팀장



1986년부터 원자력 발전설비 정비업무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해외 제작사의 기술용역에 의존하던 첨단 선진 기술분야인 원자로용기 자동초음파검사와 원자로

용기 헤드 관통관 검사를 국내 기술개발에서 현장 적용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국을 능가하는 기술자립을 달성하였음.

상기 기술자립을 통해 원자력 기술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의 훗카이도 전력과 55억원 규모의 원자로용기 헤드 관통관 검사기술 수출계약을 2005년 5월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함.

◆ 금상 (과학기술부총리상)

(주)대우건설 신월성원자력 현장팀 (단체상)

국내 원전인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근 해양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층취배수 공사에 침매함공법을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이와 같은 시공 과정에서의 침매함 설치공법의 개선 및 기자재 국산화 등 적극적인 공법 개선 활동으로 작업 안전성 향상, 공기 단축과 함께 약 100억원 정도의 건설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최영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원자력 중장기 연구 수행을 통해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전문가 시스템(NPP-IES)'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국내 가동중 원전 및 신 규 원전에 활용하여 원전 안전성 증진에 기여하였음.

또한 16년간 '국내 원전에 대한 심사 및 검사' 등의 규제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CANDU 압

원산소식

력관 평가 코드' 등의 다수의 연구 개발 결과를 원전 사업자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함.

◆ 은상 (한국원산 회장상)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단체상)

2002년부터 전국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총 39회의 비상진료교육을 통해 총 1,009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여 방사능 사고대응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체계로 발전시킴.

또한 4개 원전지역 관련 종합방재 훈련을 5차례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비상진료 교육 및 훈련용 동영상 제작·개발함으로써 방사선 테러 및 사고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확보에 기여함.

이상중 한전원자력연료(주) 안전성능해석실장

안전해석 분야의 기술자립과 기술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원전 설계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함.

또한 국책사업인 핵연료 개발에 참여하여 개량 핵연료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공헌하였고, 차세대 원전인 신형경수로1400의 안전현안을 해결하였으며, 가동원전의 출력증강을 위한 노심설계 및 안전해석 분야의 기술총괄 책임자로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

이규봉 한수원(주) 울진 제3발전소 기술실장

그동안 계측제어 분야의 시운전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측제어 분야의 기술자립과 발전소 안전운전에 기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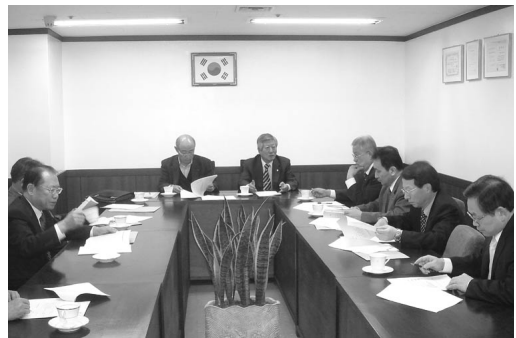
특히 울진 5#6호기에 투입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운전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6호기 상업운전을 2개월 조기 착수할 수 있게 하였고, 상업운전 초기에 설비를 조기에 안정화하여 5호기 한주기무고장운전(OCTF) 달성에 기여함.

정재천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계측제어처 차장

핵연료의 손상 징후를 초음파 탐상 기술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기술을 기술개발과제로 수행하여 검사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1997년부터 국내 원전에 적용하여 실용화 하였음.

또한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원전 주급수 측정 기술 및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신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과 적용을 통해 원전 이용률 및 안전성 증대에 기여함.

한국원산 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원산 발전위원회 회의가 4월 4일(수) 오후 5시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김종경 한양공대 원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창건 전 원자력위원,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 한기인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단장, 홍장희 전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 규칙의 일부 개정과 제7회 원자력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원자력계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